

웃지 않는 사람은 승리제단 신도 아니다?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기쁨의 천국 만들 수 있다

2000년 10월,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신도들에게 웃으라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 중 많은 부분을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도 끝까지 “웃으면서 나가시라”고 웃음을 권유하는 말씀을 꼭 첨언하셨다. 그런 후 승리제단 신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웃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세주

사실 당시 신도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세주께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1994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옥중에서 고난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 우리는 이 기간을 7년 대한란이라고 부르다 - 그분의 출옥을 기다리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장이 없는 집에 어떻게 웃음꽃이 필 수 있겠는가. 아마 신도들의 얼굴은 근심 격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2007년 4월, 그러니까 조희성님께서 웃음을 설교한 지 7년 후에 웃음을 주제로 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Anatomy of An Illness As Perceived By The Patient : Reflections on Healing and Regeneration』이 우리나라에 『웃음의 치유력』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

이 책은 노먼 커즌스(Norman Cousins)라는 저널리스트가 난치병(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후 웃음을 통하여 완치된 자신의 체험을 수필 형식으로 쓴 것인데 2005년 첫 출간된 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7년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된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병원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즐겁



웃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게 살다가 죽자는 결심을 한 후 코믹 비디옷을 빌려서 보면서 크게 웃기 시작하였고, 웃음 뒤에는 진통을 덜 느끼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의 병은 약이 없어서 진통제로 겨우 연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퇴원하여 호텔에 묵으면서 본격적으로 웃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는 1년만에 완치된 후 웃음이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연구하여 나중에는 대학교수가 되었고 ‘웃음 전도사’ ‘웃음의 아버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아이들은 하루 300번 이상을 웃지만 성인들은 고작 6번 정도밖에 못 웃는다고 한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마음의 천국이 쉽게 이루어져서 조금만 재밌는 일을 보면 깔깔대고 웃지만 어른들은 근심 격정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가 어려워 쉽게 웃지 못한다. 웃음은 생리학적으로 운동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하루 일백 번 큰 소리로 웃으면 10분 정도 조깅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웃을 때 우리 몸속 650개 근육 중 231개가 움직이게 된다. 웃음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하는 일종의 운동이다. 웃을 때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돌핀 등의 뇌내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강력한 진통효과와 면역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웃음으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세주의 웃음에 관한 말씀

통쾌하게 웃으면 피가 맑아진다. 그리고 엔돌핀이 발생되면서 T인피구가 조성된다. 그러면 병균이 몸 안의 핏속에 잠입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바이러스 균 자체가 약령자에서 나오는 균이다. 우리 몸속에는 생명자와 약령자가 같이 있다. 생명자는 바이오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이다. 약령자는 마귀의 물질이다. 계속해서 웃으면 설령 감기에 걸리더라도 생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방 낫는다. 웃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 웃기만 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구세주는 바로 영생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 사람이 병 안 걸리는 방법, 마음에 달렸다. 낙심을 하거나, 좌절된 마음을 갖는다든지, 희망이 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려서 죽는다. 사람이 실망을 자주하고, 낙심을 자주하게 되면 피가 푹푹 썩는다. 그래서 암도 걸리고, 그밖에 다른 죽을병에 걸려서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반대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언제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반대생활을 하려면 줘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먹고 싶으면 안 먹어야 한다. 화가 나면 너털웃음으로 웃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버릇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내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다. 매일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라. 거울 속의 웃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미소만 지어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큰 소리로 웃어라. 그러면 속병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잘된다. 웃음은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다. 웃는 게 영생하는 법일수록 누가 알겠는가. 오직 구세주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이 웃게 되고, 또 그 옆의 사람이 웃게 된다. 그리하여 웃음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9>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이 우주 만물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 길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순종이 곧 자유율법이다.

하나님은 하나를 생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내 몸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죽든 말든 자기만의 영화를 꾀하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기는 삶

창조의 리더십 세종

세종은 성정이 예민하고 사람을 엄격하게 대하며 근검절약을 통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유형의 군주였다. 또 일정한 결과물을 낼 때까지 독촉하며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군주였다. 세종은 자신을 밀어줄 참모를 스스로 발굴하여 황희, 맹사성을 비롯한 협상형 관료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후면에는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가 푹푹 튀는 집현전 학사들을 대거 발굴해냈다. 이를 통해 관료들의 치열한 경쟁심을 유발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형적인 현대 CEO형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국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국경을 재정비하고 군대의 규율과 제도를 점검했다. 남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하고, 함경도 지방에는 육진을 설치하며, 여진족들을 귀양을 관할하는 등 스스로도 실천하는 화시켜 남침을 예방토록 했다. 최윤덕 같은 친민 출신 하급 무인도 중용해 국경을 든든히 하는 데 크게 공을 세우게 했고 김종서를 전면에 세워 4군 6진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4군 6진의 개혁은 곧 식량의 증산을 가능케 해 경제력을 키우게 됐으며, 국방의 안정으로 우환이 줄면서 농업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세종은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참모들이 이를 적극 받아들여 뭔가를 창조해 내도록 유도하는 군주였다. 그는 개혁과 창조의 목표를 신하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점령된 후 사람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인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행복이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참나의 행복과 순간의 기쁨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세종은 관료들이 공부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관료들의 게으름을 막고 국가경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사가독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관료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었다. 세종은 재위 2년에 집현전을 설치,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해 왔는데 세조 2년(1456년)에 폐지될 때까지 37년간 1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 조선 전기의 학문과 정치의 이룩을 이끈 주역으로 삼았다.

세종은 신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대우했는데 관노 출신 장영실을 과학적으로 발탁하여 과학 창조 업무를 맡김으로써 조선의 과학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세종은 경복궁 후원에 발을 만들고, 보리씨를 뿌리고, 똥지계를 썼다. 손수 거름을 주고 날마다 작물의 생육을 관찰하는 등 스스로도 실천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였다. 관료들은 이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군주 앞에서 아무도 내뱉지 못했던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도 결국 동아시아에서 조선의 존재가 중국의 부속국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최만리 같은 보수학자들이 글을 쓰고 반대할 때 세종은 이를 분명히 하며 ‘나는 중국인으로 살고 싶은가’라고 물었을 정도로 조선의 자주적 위상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는 역사의 기록과 과학문명의 기록도 소중히 여겨 반강제로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황희와 맹사성 등이 개혁의 완성을 조력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모인 중지를 통해 목표를 추진하고 세종이 도중에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참나의 행복과 순간의 기쁨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인문학이 추구하는 바이다. 승리제단에서는 그 해답을 하나님을 목격 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는 잘못된 학문

지금까지 서양 학문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동물로 취급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서양학문의 토대가 되는 성경은 또렷하게 사람이 하나님임을 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원숭이 등과 같은 영장류의 하나로서 취급해 왔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자녀(자녀)니... (신명기 14:1)” “사랑하는 자(자녀)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자녀)라(요일 3:2)”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신)들이며 다至尊者(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사편 82:6)”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전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여야 하지만 이처럼 사람을 동물 중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인해 현 세계가 동물의 세계로 변한 책임이 잘못된 서양

학문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것을 모르는 미개한 학문

서양학문의 근간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을 사탄 마귀까지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존재로 정의하고 있지만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다. 사탄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악이 득세하게끔 내버려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궤변으로 흑세무민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위대한 경건이자 예언서인 격암유록은 도부신인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 “천지상쟁혼돈시(天地相爭混沌時)에 천신부(天神)가 지귀승(地鬼勝) 즉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워서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城)인 삼위일체는 세 세는 빨빨이 헤어져서 영적 이산가 죽어 되었다는 것이다.

마귀의 소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완성의 학문들

또한 이 세상 학문과 종교에서는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귀의 소재를 알아야 그 마귀를 소탕박멸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니 마귀의 속임수와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완전 속아서 평생 마귀의 수족 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말게 된다. 사실 성경과 불경 등의 경전에서는 욕심이 마귀로 말미암아 빛어지는 결과임을 말하고는 있지만 욕심의 주체가 되는 장본인이 ‘나라의 의식’이며, ‘나라의 의식’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주제 영이 ‘나라의 의식’이므로 사람이 곧 마귀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의식’이 마귀임을 아는 것이 모든 학문의 첫출발선이다.

하나님으로 오신 정도령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似人非人天神像)으로 이땅에 오신 구세주께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삶의 근본문제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등등의 인문학적 물음을 말한다. 승리제단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었지만 마귀에게 점령된 후 사람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인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행복이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참나의 행복과 순간의 기쁨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키우고 마귀의 영은 짓이겨서 억압하는 반대생활을 하여야 한다. 마귀의 영은 ‘나라의 의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 내속의 하나님이 점점 자라서 강해지면 쉽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면 인생의 근본문제가 술술 풀린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여! 구세주가 계시는 승리제단으로 가서 빨리 오시라!*

이수봉 정로 / 본부제단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혈액 속에 회춘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추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추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

다. 인간의 핏속에 있는 회춘물질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승리제단 조희성님이 처음 밝혔다. 그것은 바이오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영생할 마음을 가지면 생성된다는 것이다. 바이오톤을 활성화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포의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을 하게 된다

는 놀라운 학설이다.
 -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1편
<https://youtube.com/3zNiv9LqVdg>
 -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2편
<https://youtube.com/apLPN4b6eU>
 많은 시청 바랍니다.*